

이슈포인트

◆ 원/달러 환율 급등배경과 전망 ◆

금일 오전 서울 환시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9.9원 상승한 1036원에 첫 거래된 후 1044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금통위 콜금리 동결 이후 103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였다가 재상승하여 오후에는 1050원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달러 강세 전환** 3월 17일 글로벌 신용위기감이 고조되면서 1030원대까지 급등 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4월 들어 980원을 전후하여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4월 중순 이후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및 미국의 신용위기감 악화, 인플레이 우려로 인한 향후 연준리의 금리 동결 가능성 대두로 달러가치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편승하여 다시 상승 모드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부 외환시장 분석가들은 2005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글로벌 달러약세 기조가 끝나고 달러강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다른 아시아 통화 에 비해 훨씬 높은 절상율을 보였었던 원화에 대해 정상적인 수준으로의 되돌림 현상에 더해 단기간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무역수지 적자기조 등으로 서울환시에서의 달러 수요우위를 점치면서 무역수지 적자국인 인도 루피와 더불어 원화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 **국내 외환 수급상황, 일방적인 수요우위 지속** 최근 지속된 수년간의 조선수주 호황으로 서울 환시에서는 일방적인 매도압력이 우세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일방적인 수요우위로 전환하였습니다.

연초 주식배당금 역송금, 하이마트·하나로텔레콤 M&A 등 이벤트성 달러수요, 작년말부터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엔화 강세로 인한 엔/달러 크로스거래 수요, 유가급등으로 인한 정유사 결제수요 증가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은 해외증시 급락으로 인한 투신권의 급격한 환헤지물량 축소, 외환당국의 환율상승 용인태도, 역외매수 등이 가세하여 수급상 일방적인 달러수요 우위속에 시장참여자들의 시각도 환율 상승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 **중공업 업체 등 수출업체 환헛지 태도 변화** 일방적인 환율하락 기조속에 습관적으로 수주물량을 헛지하던 중공업업체들은 금년들어 원/달러 환율이 900원을 저점으로 1030원까 급등(14% 평가절하)하는 과정에서 최근 모 중공업체의 2000억원 이상의 외환파생상품 손실발생 등 대규모 환헛지 손실이 발생하면서 환헛지 비율축소, 환헛지 시기 지연(Lagging) 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등 외환전략의 변화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수주실적이 작년 실적을 소폭 밀돌고 있는데다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필요 달러헛지비율 감소로 환헛지물량이 축소되고 있어 그동안 주요 달러 매도세력으로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리포트의 내용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주관적인 견해로서 투자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슈포인트

◆ 원/달러 환율 1040원 돌파 배경과 전망 ◆

▷ **고유가 지속으로 탄탄한 결제 수요** 국제유가는 7일 뉴욕외환시장에서 123.80달러까지 급등하는 등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 등 원자재 가격급등은 달러가치 하락손실을 헷지하기 위한 대체투자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달러가치의 반등 시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둔화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둔화예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실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유가는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속 및 향후 유가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유사들은 가능한 결제시기를 앞당기는 전략(Leading)을 구사하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일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유사들의 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책당국의 환율상승 용인 스탠스 지속** 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7% 경제성장을 달성의지는 수정하였으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산업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 외환정책 라인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적인 구두개입 및 일시적 물량개입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로의 환율하락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 유가, 역외 및 정책당국의 움직임 주목**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공업 업체 등 수출업체의 네고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제수요 등 일방적인 달러 수요요인이 부각됨으로써 급등하였습니다. 3월 중 환율급등을 이끌었던 여러가지 수요요인 중 배당금 역송금, M&A 수요, 엔/달러 크로스거래, 투신사 환헷지 물량 축소 등 일시적 수요요인은 상당부분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환율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의 향방 및 정책당국의 환율에 대한 스탠스 및 이에 따른 역외 등 시장참여자들의 태도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부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급등에 있는 만큼 원자재가격 급등현상이 완화되지 않는 한 환율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3월 환율 급등시 한은의 개입에 의해 급등세가 멈추었으나 최근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정책당국자들이 환율상승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 1000원선에 대한 하방경직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급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추가적인 환율급등시 정부에서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태도변화시 역외의 이익실현 및 신규 섯포지션 구축,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으로 일정부분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1차 저항선이 1200원에서 900원까지 하락한데 대한 50% 되돌림 레벨인 1050~1060원선, 2차 저항선은 61.8% 되돌림 수준인 1080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리포트의 내용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주관적인 견해로서 투자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